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9, 마가복음 4:35-5:20, 폭풍의 진정과 귀신 들린 자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9, 마가복음 4:35-5:20, 폭풍을 진정시키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4장 초반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가 권위 있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한 측면은 비유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는 비유를 사용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는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비유로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사건으로 돌아가는 전환을 겪게 되고, 폭풍의 진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매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읽어주고 토론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은 35절로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그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무리를 남겨두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가 배에 있는 그대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격렬한 돌풍이 불어와 파도가 배를 덮쳐 거의 침수되었다. 예수는 선미에서 베개에 누워 주무셨다. 제자들이 그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는 것을 개의치 않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며 파도에게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그들은 무서워서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람과 파도조차도 그에게 복종합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의 권위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의 일관된 측면은 예수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에는 육체적 치유와 엑소시즘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첫 번째 자연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위가 드러난 것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건이 호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은 호수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6장 45-52절을 보면, 다른 호수의 기적에서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힘, 하나님의 신성한 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아마도 치유의 기적에서보다 더 본질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요소에 대한 힘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전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는 마가복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개 기법입니다.

그는 종종 그런 식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그날, 그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야기에서, 표면적으로는, 그것은 하루 동안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1-34장은 특정 하루 동안의 가르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것이 서사 구성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가르친 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던 비유적 가르침과

매우 유사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다음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장 1절에서 시작된 배인 듯 보이는 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 주위에 모인 무리가 너무 많아서 그분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서사에 따르면, 그들은 여기서 같은 배에 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가 왜 떠나고 싶어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중을 뒤로 한 채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예수께서 반대편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뿐입니다. 추측컨대, 그분이 군중의 인기와 규모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군중을 피해 물러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한 지역에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 그의 바람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것은 1장에서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지 말라고 선언한 가버나움에서의 첫날부터 변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절, 그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들은 그를 있는 그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36절에는 그와 함께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작은 부분이 언급되는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배들은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 다른 모든 배가 추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만 반대편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설교할 수 있고 예수님의 배는 반대편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보트가 언급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좋은 목격자 입장 프레젠테이션의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관찰 가능하고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조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려고 하는 이 기적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군중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것은 군중이 목격할 권능의 과시가 아니며, 그들은 많은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반대편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수에 있는 동안, 격렬한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타난 초자연적 폭풍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주장의 일부는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에 반응하실 때, 그분이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들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언어입니다. 제 생각에,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첫째, 폭풍 속에서 영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마가복음의 진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크는 무언가가 악마의 활동의 결과이고 무언가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매우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소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폭풍의 도래는 비정상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모든 기록에서 예수는 잠자고 있는데, 이는 그의 인간적 본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는 지치고 피곤하며 잠을 자고 있고, 제자들은 당황해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구약성경의 요나와 비교하고 대조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요나 1:5-6에서 요나도 이 폭풍우 동안 놀랍게도 잠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는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 선미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올라간 그 구역에 있는 것처럼요. 요나처럼 예수는 공황 상태에 빠진 선원들에게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나가 요청받은 것처럼 신의 개입을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폭풍에 대한 즉각적인 기적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졌을 때, 여기서의 끝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요나 이야기는, 여기서 약간 반복된다면, 예수의 힘과 차이를 보여주는 대조 역할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 이야기에서 폭풍이 언제 존재하고 언제 멈출지를 통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졌을 때 그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께서 폭풍이 언제 멈출지 통제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잠재적으로 흥미로운 유사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폭풍을 가지고 있고, 폭풍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파도가 배 위로 부서지고 돌풍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바람과 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있습니다. 둘 다 함께요. 그래서 거의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보트에 익숙합니다.

이들은 폭풍우가 치는 동안 호수에서 배를 탄 적이 없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폭풍의 심각성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깨우고,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는 것은 상관없으신가요?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에 대한 이 언급을 제자들이 경건함이 부족하다는 지표로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해력이 부족할 겁니다. 저는 그들이 교사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깨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방금 33절에 걸쳐 그의 가르침에 대해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그가 예수를 제시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사였어요. 그게 그가 한 권위 있는 일 중 하나였어요. 치유, 엑소시즘,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그 질문은 확실히 도움 요청입니다. 질문의 구조는, 그리스어를 보면, 긍정적인 대답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선생님, 전혀 신경 안 쓰시나요?"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신경 쓰지 않으세요? 가정은 "네, 신경 쓰신다"입니다.

이제, 충분히 흥미로운 점은, 제자들이 예수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분명하지만, 그것은 그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움 요청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손을 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잠에서 무례하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39일 일어나 바람을 꾸짖고 파도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 꾸지람은 엑소시즘에서와 같은 언어입니다. 아마도 그가 폭풍에게 말하는 이 그림에는 의인화된 품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과 물이 사악한 힘이라는 뜻인가요? 바람, 물, 폭풍은 고대 세계에서 혼돈과 인간에 반하는 권력에 대한 강력한 상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8편, 시편 104편과 106편, 이사야 50장, 나훔 1장,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 이미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비록 명백한 악마적 영적

존재가 없더라도, 폭풍과 파도와 혼돈은 고대 세계에서 오랫동안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아온 예수님의 권위 패턴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예수가 말씀하시고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는 말씀하시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고, 악마들은 잠잠해지고 즉시 나가고, 여기서 그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조용함, 가만히 있으라, 바람이 잦아들고 완전히 고요했던, 조용함, 가만히 있으라의 구조, 제가 올바르게 읽었다면, 조용함은 바람에게 말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돌풍과 파도가 부서지는 이런 끊임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바람을 꾸짖고 파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멎고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요함이 바람에 대한 것이고 고요함이 물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결과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즉각적인 결과.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이제,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진술의 41 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를 깨운 이유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 복음에서 더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는 활동이 꾸지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질문은, 그들이 잘못된 게 뭐였을까? 여기 거대한 폭풍이 있었습니다. 배를 바꾸는 폭풍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예수께 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정확히 옳은 일인 듯합니다.

사실, 당신은 이것에 대한 좋은 신학적, 영적 적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의 폭풍이 올 때, 예수님께 가세요.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으로 보아, 그들이 한 일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물론, 우리가 역사해도 상관없나요?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책망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고, 예수님이 타셨던 배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힘과 사명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이 폭풍 속에서 그들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안전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 그게 예수가 그들에게 화가 난 이유였을까 궁금합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은 그를 잠들게 하고 그들이 반대편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가 가고 싶은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였습니다.

물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지 그들에게 물어본 후에,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서로에게 "이 사람은 누구야? 바람과 파도조차도 복종하잖아"라고 물었다는 진술을 듣게 됩니다. 요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폭풍이 온 끝에 주님이 찬양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 복음에서, 주님은, 말하자면, 질문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혼란과 공포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창세기 8장, 욥기 26장, 이사야 50장을 생각해보세요.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제자들의 기적에 대한 반응, 두려움, 그들이 책망이 아니라 기적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들은 일어난 일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왜 당신이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적은지에 대한 질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두려움의 언어는 그들이 폭풍에서 가졌던 것보다 더 큰 의미로 두려움을 표현하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두려워했고, 이제 그들은 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건한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적의 규모는 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은 폭풍을 멈출 수 있는 분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의 폭풍을 멈출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한 응답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악마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람과 파도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 사람?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결국 8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묻는 대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활동의 일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안식일에 치유가 있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 가족인지에 대한 토론, 베엘제불과의 논쟁, 우화에 대한 공개적인 가르침, 폭풍의 진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번째 부분의 이 측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화가 발생합니다. 지리적으로나 엑소시즘 측면에서 우리가 겪는 변화입니다. 그럼, 여기서 5:1-20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관례대로, 읽어보고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게라사 지방으로 갔다 .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악령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를 맞으러 왔다. 그 사람은 무덤에 살았고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묶을 수 없었다. 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그는 종종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웠지만, 쇠사슬을 찢어버리고 발에 찬 쇠사슬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제압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그는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베었다.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령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 입니까? 제 이름은 군단입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그들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거듭 간청했습니다. 많은 돼지 떼가 근처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돼지들 사이로 보내주시고 , 우리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셨고, 악령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2천 마리의 무리가 가파른 언덕을 달려 호수로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달려가서 이 일을 마을과 시골에 알렸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왔을 때, 그들은 군대의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말했고 돼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그들의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와 함께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주께서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떠나서 데카폴리스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적어도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마의 이런 권유를 받았고, 이 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과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엑소시즘은 다른 엑소시즘보다 조금 더 지연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대화 때문입니다. 돼지 속으로의 극도로 이상한 추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이 사람들에게 목격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그 남자가 추종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계속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다에 가깝지만 산과 가파른 언덕도 있습니다. 어휘가 약간 다릅니다.

구조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이 여기서의 형식, 편집 작업이 이루어진 형식 전달의 경직성을 가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본 전통에는 이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격한 문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1절과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이 설명에 대한 많은 변형이 없습니다. 매우 엄격합니다.

흥미로운 구조가 있습니다. 처음 5절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야기할 배경을 알게 되고, 6-13절에서 엑소시즘이 이어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예수가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마가 복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폭풍 전에 그는 435년에 반대편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고, 5-1장에서 그들이 호수를 건너 게라사 지방으로 갔을 때, 이 이야기 가 시작된 곳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의 영토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결정하기에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37마일 떨어진 곳에 게라사라 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다양한 용어와 철자가 사용되었습니다. 텍스트에 약간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절의 끝을 기준으로 이것이 데카폴리스의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제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이방인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연대기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폭풍이 있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 우세한 지역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의 배경을 살펴보죠.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악령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를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마가는 보통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당에서 우리가 만난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저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많은 세부 사항을 얻기 시작합니다. 첫째, 이 남자는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무덤은,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가 온 곳에서, 무덤은 부정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죽음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무덤은 항상 공동체와 떨어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고립된 지역에 있습니다.

그 남자는 무덤 속에서 살았고,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묶을 수 없었다. 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이는 그 남자를 묶으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그는 종종 손과 발에 사슬을 매었지만, 사슬을 찢어버리고 발에 매인 족쇄를 부수었다. 그런 다음 주제적 진술은 아무도 그를 제압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그를 묶을 수 없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슬에 대한 이 언급, 사슬에 대한 또 다른 언급, 그리고 아무도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마지막 진술입니다.

그것은 거의 카이아스무스인데, 이는 다른 요소가 다른 요소에 대응하는 매우 특정한 유형의 구조입니다. A, B, B, A 구조입니다. 그들을 묶어라, 족쇄, 사슬, 사슬, 족쇄, 그를 제압할 만큼 강해라.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먼저 얻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그를 사슬로 묶으려 했지만 그는 할 수 없었고,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으며, 아무도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루어 온 권위의 주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발생하는 힘 외에도 이 남자의 불쌍한 현실에 대한 인간을 초월한 힘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그는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또한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악마의 소유의 자기 파괴적 본질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무리, 이 사람 안에 있었고,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지만, 그들은 종종 또한 베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베었고, 그들은 그에게 해를 끼치고 위험을 초래했고, 그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에 보았고, 그의 무릎 꿇음은 경배가 아니라, 그것은 더 많은 복종이며, 그것은 인식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즉각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침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멀리서 그를 볼 수 있었고, 예수의 권위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이 있고, 그는 넘어지고,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은 거의 그대로이고, 그 첫날 회당에서 악마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말한 진술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것은 거기의 언어였습니다. 여기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단수와 복수 사이에 흥미로운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엑소시즘에서는 한 명의 악마와 한 남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는데, 아마도 일반적인 악마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의 구조, 그 특정 언어가 맥락에 따라 적대감에 가까운 분리의 언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여러 악마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수와 복수 사이에 흥미로운 지속적인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의 아들 , 다시 말하지만, 예수와 마가복음에서 악마가 예수와 하나님 사이의 권위에 기반한 어떤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작은 추가 사항을 얻습니다. 신에게 맹세해, 나를 고문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서 신에게 맹세한다는 언급은 흥미롭지만, 악마가 예수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맹세 진술을 끌어내는 것일까요? 이 번역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신에 의한 생각일 수 있는데, 파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만 파괴가 늦거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파괴가 어느 시점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연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지만, 그들은 예수에게 고문하지 않겠다는 진술을 하기를 원하며, 이 고문에는 심판이라는 생각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악마들이 이 남자를 괴롭혀 왔고, 이제 예수 앞에서 그들이 고통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숫자 8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악령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 예수님의 엑소시즘 명령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전처럼, 여기서는 전투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건 12라운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엄청나게 강한 소유는, 마크가 이 남자가 이 모든 악마들과 얼마나 강한지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슬이 끊어지고 등등, 그들이 나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악마들은 즉시, 우리를 심판하러 보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올지 말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을 얻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너의 이름은 뭐니?”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가 영적 힘을 갖기 위해 이름을 알아야 했고, 고대 세계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아는 것은 마법적 우월성을 선언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왜 예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가? 왜 우리가 이 말을 듣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가정, 즉 예수께서 우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가정과 일치한다면, 그는 이 이름이 들리고, 증거되고,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군단입니다, 그는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마크가 반로마적 성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마크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면, 마크는 이 이야기를 각색하여 Legion이라는 이름을 삽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에 대한 미묘한 성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로마에 대한 것이라는 다른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로마적 요소가 없습니다. 둘째, Legion은 군대, 군대의 수, 많은 수의 군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악마를 거느린 군단이라는 용어는 제2성전 유대교의 다른 곳에서, 일부 외경과 위경 문서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종의...

그것은 자연스럽게 항상 로마와 연관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응, 제 이름은 군단입니다, 은 실제로 관련된 수의 묘사이며 로마에 대한 공개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심지어 "내 이름은 군단이다. 우리는 많으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그를 내보내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예수께서 그 요청에 굴복하거나 수긍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처 언덕에서 많은 돼지 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방인 땅에 있습니다. 유대인 땅에서 돼지는 부정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여기 돼지는 가축의 한 형태입니다. 악마들은 예수께 우리를 돼지들 사이로 보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무덤에서 살았고, 이제 그들은 돼지에게 가고 싶어합니다. 문화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유사점도 있습니다. 아마도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허락했다. 그리고 악령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약 2,000마리의 무리가 가파른 언덕을 달려 호수로 빠져들어 익사했다.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가 왜 그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미는, 일대일 관계를 가정하지 않고도, 2,000마리에 가까운 돼지가 갑자기 행동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이 남자 안에 있던 악마의 수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남자 안에 있던 악마의 침입을 직접 보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마리의 돼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식사하고, 예수가 강제로 식사시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가 그들이 돼지에게 가는 것을 허락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이 호수의 가파른 독을 달려 식사했다는 사실이 더 나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악마가 숙주에게 해롭고 혼란스럽고 자기 파괴적이라는 자기 파괴적 본성을 보여줍니다 .

그러면 이것은 예수의 권위에 대한 그림을 강화할 것입니다. 예수의 권위는 단순히 악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쳐버린 혼란스러운 돼지 떼로 가장 잘 표현되는 악마 군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마을과 시골에 보고했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일은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왔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본 것은 악마 군단에 사로잡힌 남자가 거기에 앉아 있고 , 옷을 입고 제정신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는 무덤 속에서 울고, 자해하고, 사슬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는 거기에 앉아서 옷을 입고 제정신입니다.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반응은 또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배에서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바라보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온 이방인 마을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고 돼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어떤 경제적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돼지는 아마도 그 지역 경제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그들의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슬픈 사건의 전개입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미친 돼지 무리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을 보는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축하는 대신, 감사하는 대신, 예수께 떠나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는 악마들이 예수께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강력하고 불안한 마법사가 들어왔을 것이고, 그가 이 사람을 제정신으로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곁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에 대한 이 초기 반응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가 배에 오르고 있을 때. 그래서 다시, 예수는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떠나기를 원하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과 함께 가고 싶다고 간청했는데, 그것은 말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흥미롭게도,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첫 번째 이방인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에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침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자주 침묵하라는 명령,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이방인 선교를 예견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된 이방인이 있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지역으로 돌아오면, 다음에 예수님이 데카폴리스에 오실 때, 그에게 다가올 열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치유를 기대하고, 말할 것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7:31, 8:10에서 나중에 이 사람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성공한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실제로 심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공적 사역과 권위 있는 사역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9, 마가복음 4:35-5:20, 진정시키는 폭풍과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